

# 수도권매립지공사 지방 이관 '우려'

### 매립지 사용종료 국회토론회 사용종료 관련 쟁점 등 분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모경중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쟁점 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달 30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 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공동 연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4자합의 내용 중 공사 지방 이관 시 인천시가 추가로 떠맡게 될 행정·재정·사회적 책임·의무 문제를 분석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사 명칭 개정 필요성, 국가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공사 기능과 역할을 전국·해외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법 요구(안) 등 내용으로 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모경중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쟁점 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과관에서 열렸다.

제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석완 한국폐기물 자원순환학회장은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촉구했다. 김석완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공사 이관에 따른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 검토·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김성용 기자

# 김포시의회 임시회 '또 파행'

### 민생조례안 심의 불발 김포시 "민생 피해 격증"

김포시가 지난 달 30일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또 한번 불발됐다.

시는 지난 달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이어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심의 불발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한번 심의가 불발됐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오는 3~13일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결정

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 반산단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단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담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대출금 6500억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노인·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심각한 경제 타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종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된다. 또한 대중교통 지원 중저소득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억 7000만원 등 지원 중지여 따른 운수업

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무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억5000만원, 셋들천정비사업비 약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억8000만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삼 기자

# 평택시의회 원구성 극적 합의

### 민주당 3개 위원장 선출 오는 9일까지 상임위 구성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이어진 평택시의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평택시의의회는 지난 달 30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관우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합의 사항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의회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제9대 평택시의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5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3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는 8일까지 위원장 추천안과 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한다. 신동훈 기자

또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평택시의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의장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평택시의의회 의원 18명 전원은 하반기 원구성 지연에 대해 평택시민에게 사과했다.

# 사업 현장·소관 기관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 현장중심 의정활동 시작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요 사업 현장 및 소관 기관 등 7곳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부서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인천의 종합 기획 조정,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달 29일 계약 방송통신시설을 시작으로 인재개발원·인천연구원·루원복합청사 건립 현장 등 4곳을 찾았고, 이어 30일에는 119종합상황실·미추홀콜센터·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번 일정에는 김재동(국민의힘, 미추홀)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분(국민의힘, 연수3)·김대영(민주당, 비례) 부위원장, 김명주(민주당, 서구6)·임

춘원(국민의힘, 남동1)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인천시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데 주요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 및 소관 기관과 소통해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도 추진됐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오는 11월 계획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열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요 사업 현장 및 소관 기관 등 7곳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사진=인천시의회)

#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격 '스퍼트'

### 박용철 강화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승리 다짐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다음 달 16일에 진행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민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천시의회 의원, 김해영 서울시의회 의원,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등 정치인과 당원 700여 명이 찾아 인사인해를 이뤘다.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편 가르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철이 그리는 강화의 미래

는 현재와 미래, 개발과 보존, 청년과 기성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열린 강화"라면서 "남녀노소 모든 강화군민의 바람과 힘을 하나로 모아 균형 있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축하사에서 "박용철 예비후보의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강화발전을 바라는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박 예비후보는 능력이 검증된 것은 물론 충분한 경험과 경륜도 갖췄다"고 박용철 예비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3선 강화군의원과 초선 인천시의원으로 1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소통해왔다.

최근에는 지역 발전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등 정책·민생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유지남 기자

## 경기도의회 소식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양우식 의원



적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 딥페이크 범죄 근절 TF 설치 촉구

####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주당, 수원2·사진) 의원은 지난 달 28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업무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사진·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

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

### 소상공인 간담회서 의견 청취

#### 남경순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사진) 의원은 지난 달 29일 열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살리기 톨론 세일'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더 다양화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특성화사업 공모와 2024년 추석 지역상권 소비·활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소상공인들 내 가계를 찾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인창 기자